

전남 농촌이 무너져 간다

매년 1만명 이상 고향 등저...고령화 심각

매년 각종 귀농정책과 농업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전남에서 매년 1만명 이상의 농민들이 고향을 등져 농촌사회가 붕괴 직전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청·장년 층의 탈농업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농민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15일 전남도가 국회 농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농가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8만6천 가구 43만9천 명으로 집계됐다. 2000년만 해도 60만6천 명이던 농가인구가 8년 만에 16만7천 명이 줄어들었다.

최근 4년간 농가인구 추이를 보면 ▲2005년 47만7천611명 ▲2006년 46만1천36명 ▲2007년 45만2천324명 ▲2008년 43만8천961명 등으로, 매년 1만 명이 상씩이 농사일을 접고 농촌을 등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여수와 곡성, 해남, 영광 등 농가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최근 2년 동안 50~64세 사이 농민 8천243명이 농사일을 접었고, 40대도 6천376명이 농촌을 떠났다. 이어 30대는 2천219명, 20대는 3천14명이 농촌을 등졌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전남지역 전체 농가인구의 38.3%인 16만8천 명으로, 농촌 일손 부족현상이 큰 골치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이농현상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년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농가부채만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이 규모화되고 있는 것도 이

농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3년간 한 가구당 전남지역 농가소득은 2006년 2천797만4천 원에서 2007년 2천754만5천 원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2천634만9천 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남의 농가소득은 전국 9개 도(道) 중에서 8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가부채는 2005년 2천690만2천 원에서 2006년 2천884만7천 원으로, 2007년 2천934만5천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3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전남의 농가부채는 전국 9개 도 중에서 7위로 높은 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가 식량공급기지 역할을 하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고소득 작목 비중도 낮아 농가소득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 때문에 탈농촌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전남도는 친환경 농업 육성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농정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2009년 총동창회 체육대회◆

● 일시: 2009. 10. 18(일) 09:30

● 장소: 모교운동장

☎ 062-230-0200, 062-232-6897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슬슬 몸풀어 볼까” 한국시리즈 개막을 하루 앞둔 1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KIA 선수들이 가벼운 러닝으로 몸을 풀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기다렸다 가을잔치 호남인 희망을 쏜다

한국시리즈 오늘 개막

“10번째 우승으로 호남인들에게 새로운 긍지와 희망을 심어줬으면...” 16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SK와 이번스를 상대로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10승 신화에 도전하는 KIA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호남팬들의 열원이 다시 한 데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월 불굴의 투혼으로 월간 최다승(20승) 신기록을 작성하며 정규리그 정상을 밟았던 파죽지세로 'V10 고지'에서 포효하는 '무등의 기상'을 다시 보고 싶은 것이다.

팬들은 KIA 타이거즈의 '8월 대장정'이 경제난에 신음하던 호남인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위안이 됐던 만큼, 이제 한국시리즈 10번째 우승으로 호남인들이 다시 희열을 만끽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호남팬들에게 타이거즈의 'V10'은

지난 1997년 9번째 우승 후 12년 동안 이루지 못한 꿈이기도 하다.

팬들은 이번 한국시리즈에서 해태 시절 열악한 그라운드 환경을 딛고 한국시리즈 9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타이거즈의 투혼을 보며 열광했던 '그때'가 재연되길 고대하고 있다. 정략적인 호남배제와 차별이 시달리면서 자신들과 닮아있는 타이거즈의 불굴의 투지와 목표를 향한 열정을 보면서 위안과 희망을 찾았기 때문이다.

타이거즈는 해태 시절 열악한 구단 재정 형편에도 대규모 물량 공세를 앞세운 삼성을 86, 87년 잇따라 꺾었다. 호남팬들은 해태가 우승할 때마다 '목표의 눈물'을 뚝이 터져라 부르며 가슴의 응어리를 풀었다.

무려 9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과정도 고단한 호남인들의 삶과 닮아 있다.

80년 광주항쟁으로 찢겨있던 광주

의 마음을 달래줬던 것도 83년 창단 첫 우승이었고, 1997년 IMF경제난에 신음하던 팬들에게 위안을 준 것도 한국시리즈 정상을 밟은 쾌거였다.

당시 선수들은 모 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렸음에도 불굴의 집념으로 당당히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려 좌절하지 않는 호남정신을 보여주었다. 지난 1996년 현대와의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정명원에게 '노히트 노런'의 결정타를 맞고도 결국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한국 시리즈에 9번 진출해 모두 정상을 밟은 '호랑이 투혼'은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서도 끈기를 잃지 않는 호남인과 똑같았다.

호남인들은 기아가 한국시리즈 10번째 우승이라는 '전설'을 만들어 온 행운이 노랑계 물들어가는 금방로에서 함께 발일 화려한 축하 퍼레이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윤명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알림

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 시민건강 걷기대회

올해로 80주년을 맞이한 학생독립운동을 기념,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11·3 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 시민건강걷기대회'가 오는 11월 1일 광주 상무시민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고급 기념품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2009년 11월 1일(일) 오전 9시, 광주 상무시민공원 경기장 일원 (3km 코스)
- 참가 접수 및 문의: (062) 940-3706, FAX (062) 940-3705
- 주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광주일보사
- 주관: 11·3건기대회행사위원회, 광주광역시위협협회, 호남대스포츠과학연구소
- 후원: 광산대학교
- 협찬: 동아제약

光州日報社

되돌아본 타이거즈 V9 영광의 순간들 10·11면, 스포츠 13면